



2013 군무원 문항(복원) 및 해설

전) 비타에듀 언어영역
전) 이투스 청솔학원 언어영역
전) 메가스터디 언어영역
현) KG패스원 국어

저서) 2013 EBS 검토
2012 자이스토리
디딤돌 국어의 모든 것 시리즈
디딤돌 EBS의 모든 것 시리즈
메가박스 EBS 분석노트 비문학
네오뱅크 완소국 국어능력인증
네오뱅크 구슬탐 국어능력인증



문 1. 다음 문장에서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¹⁾

- ① 내가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온지 어언 삼십 수년이 지났다.
- ② 일을 잘하는데 요구되는 두어 가지 덕목을 말해보아요.
- ③ 홍부장님과 홍길동씨는 둘 다 홍씨이고 얼굴이 닮았다.
- ④ 너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 안 두겠다.

문 2.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적은 것은?²⁾

- ① 같이[gachi] ② 목호[muko]
- ③ 칠곡[chilkkok] ④ 알약[aryak]

문 3. 다음 중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³⁾

- ① 네 - 예
- ② 짓물다 - 짓무르다
- ③ 찌다 - 쪼이다
- ④ 고린내 - 코린내

문 4. 다음 중 한자의 표기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⁴⁾

- ① 반월[反月] ② 곡선[曲善]
- ③ 고전[古展] ④ 아미[蛾眉]

문 5. 다음 중 고유어 '새옹'의 뜻으로 옳은 것은?⁵⁾

- ① 작고 오목한 샘터 ② 남을 시기하는 마음
- ③ 늦쇠로 만든 작은 술 ④ 짚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

문 6. 다음 중 밑줄 친 곳의 격조사로 옳은 것은?⁶⁾

- ① 막내마저 출가를 시키니 마음이 허전하다.
- ② 철수는 시골에서 서울로 왔다.
- ③ 동생은 수박과 참외를 좋아한다.
- ④ 나는 거칠 것 없는 바다의 사나이이다.

문 7. 다음 중 문장의 성분이 이질적인 것은?⁷⁾

- ① 철수는 사과도 좋아한다.
- ② 영희는 가수가 되었다.
- ③ 할아버지께서는 영화보는 것을 좋아하신다.
- ④ 철수는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문 8. 다음 중 언어예절에 어긋나는 것은?⁸⁾

- ① 정년 퇴인을 앞둔 부장에게 : 벌써 정년퇴임이시라니 아쉽습니다.
- ② 문상객이 상주에게 : 호상[好喪]입니다.
- ③ 병문안을 가서 환자에게 : 얼마나 고생이 되십니까?
- ④ 새해에 연장자가 젊은이에게 : 소원 성취하계!

문 9. 여자의 입장에서 오패의 아내와 남동생의 아내에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은?⁹⁾

- ① 동서 ② 올케
- ③ 계수 ④ 아가씨

문 10.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사자성어와 의미상 관련성이 적은 것은?¹⁰⁾

- ①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듯이 몸이 병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소.
- ② 나는 견마지르처럼 국회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 ③ 선생님을 존경하여 절치부심으로 은혜를 갚겠다.
- ④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진솔한 마음과 자세 그리고 행동을 보여야 한다.

문 11. 다음 중 문장부호를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¹¹⁾

- ① “ ” (큰따옴표): 중요한 말에 사용한다.
- ② - (붙임표):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가 결합되는 경우에 쓴다.
- ③ , (쉼표): 접속사 뒤에 사용한다.
- ④ [] (대괄호): 원어 지역명에 사용한다.

문 12. 다음 중 한글맞춤법으로 옳은 것은?¹²⁾

- ① 윗쪽 ② 통채
③ 귀뿔 ④ 귀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14)

[가] 만주의 어느 곳이나 조선사람이 없는 곳은 없지만 이러한 오지에서 한동네가 죄 조선사람뿐으로 되어있는 곳을 만나니 반가웠다. 더구나 그 동네는 비록 모두가 만주국인의 소작인이라 하나, 사람들이 비교적 온랑하고 정직하여, 장성한 이들은 그래도 모두 천자문 한 권쯤은 읽은 사람이었다. 살풍경한 만주, 그 가운데서 살풍경한 살림을 하는 만주국 인이며 조선사람의 동네를 근 일년이나 돌아다니다가 비교적 평화스런 이런 동네를 만나면, 그것이 비록 외국인의 동네라 하여도 반갑겠거늘, 하물며 우리 같은 동족임에랴. 여는 그 동네에서 한 십여 일 이상을 일 없이 매일 호별 방문을 하며 그들과 이야기로 날을 보내며, 오래간만에 맛보는 평화적 기분을 향락하고 있었다. '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정익호'라는 인물을 본 것이 여기서이다. 익호라는 인물의 고향이 어디 인지는 XX촌에서 아무도 몰랐다. 사투리로 보아서 경기 사투리인 듯 하지만 빠른 말로 제재거리는 때에는 영남 사투리가 보일 때도 있고, 싸움이라도 할 때는 서북 사투리가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런지라 사투리 로써 그의 고향을 짐작할 수가 없었다. 쉬운 일본말도 알고, 한문글자 도 좀 알고, 중국말은 물론 꽤 하고, 쉬운 러시아말도 할 줄 아는 점 등등, 이곳 저곳 술하게 돌아다니는 것은 짐작이 가지만, 그의 경력을 ㉠ 똑똑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나] 여(余)가 ○○촌(村)에 가기 1년쯤 전, 빈손으로, 이웃이라도 오듯 ㉡ 후다닥 ○○촌에 나타났다 한다. 생김생김을 보면 얼굴이 쥐와 같 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으며, 눈에는 교활함과 독한 기운이 늘 나타나 있으며, 발룩한 코에는 코털이 밖으로까지 보이도록 났고, 몸집은 작으 나 민첩하게 생겼고, 나이는 스물다섯에서 사십까지 임의로 볼 수 있으 며, 그 몸이나 얼굴 생김이, 어디로 보든 남에게 미움을 사고 ㉢ 근절 친 못할 놈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다] 그의 장기는, 투전이 ㉣ 일수며, 싸움 잘 하고, 트집 잘 잡고 칼부 립 잘하고 색시에게 덤벼들기 잘하는 것이라 한다. 생김생김이 벌써 남 에게 미움을 사게 생겼고, 거기다 하는 행동조차 ㉤ 변변치 못한 것만 이라, ○○촌에서는 아무도 그를 ㉥ 대척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하였다. 집이 없는 그였으나, 뉘 집에 잠이라도 자러 가면, 그 집 주인은 ㉦ 두말없이 다른 방으로 피하고, 이부자리를 준비하여 주곤 하였다. 그러면 그는 이튿날 해가 낮이 되도록 실컷 잔 뒤에, 마 치 제집에서 일어나듯이 ㉧ 느직이 일어나서 조반을 청하여 먹고는, 한 마디의 사례도 없이 나가 버린다. 그리고, 만약 누구든 그의 이 청 구에 응치 않으면, 그는 그것을 트집으로 싸움을 시작하고, 싸움을 하 면 반드시 칼부림을 하였다. 동네의 처녀들이며 젊은 여인들은, 익호가 이 동네에 들어온 뒤부터는 마음놓고 나다니지를 못하였다. 철없이 나 갔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도 몇이 있었다.

[라] 삶은 이 동네에는 커다란 암종이었다. 삶 때문에, 아무리 농사에 사 람이 부족한 때라도 젊고 튼튼한 몇 사람은 동네의 젊은 부녀자들을 지키기 위하여 동네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없었다. 삶 때문에 부녀 와 아이들은 아무리 더운 여름 저녁에라도 길에 나서서 마음놓고 바람 을 쐬어 보지를 못하였다. 삶 때문에 동네에서는 닭의 우리며 돼지우리 를 지키기 위하여 밤을 새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동네의 노인이며 젊은 이들은 몇 번을 모여서, 삶은 이 동네에서 내어쫓기를 의논하였다. 물 론 합의는 되었다. 그러나, 내어쫓는 데 선착(先着)할 사람이 없었다.

문 13. 위 작품에서 시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단락은?¹³⁾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문 14. 위 작품에서 밑줄 친 곳의 표준어가 틀린 단어로 묶은 것은?¹⁴⁾

- ① ㉠, ㉡ ② ㉢, ㉣
③ ㉤, ㉥ ④ ㉦, ㉧

문 15. 다음 <보기>의 밑줄 친 곳의 의미와 비슷하게 사용된 것은?¹⁵⁾

<보기>
언 고기를 구우려면 시간이 많이 든다.

- ① 회사에서 사업준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② 기상청의 일기예보에 의하면 매서운 한파가 들 예정이다.
③ 낮이 안 들어 버를 베는 데 힘이 든다.
④ 산에 갔다 오는 길에 절에 들러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문 16. 다음 중 중의적 표현이 사용된 문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은?¹⁶⁾

- ① 나는 예쁜 누나의 친구를 좋아한다.
② 그녀는 이 세상에서 나만 좋아한다.
③ 나와 친구들은 점심을 먹었다.
④ 곁에 차려 입은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문 17. 다음 중 문장에서 표준어가 바르게 쓰인 것은?¹⁷⁾

- ① 아주머니는 내게 시금치국물을 듬북 퍼 담아주셨다.
② 언니는 밤새 해숙해진 얼굴로 나를 맞아주었다.
③ 아이들은 금세 친해져서 함께 뛰며 법석을 떨었다.
④ 씹씹하게 익은 동치미국 국물 맛이 끝내주는구나.

문 18. 다음중 모음의 영향으로 바뀐 것은?¹⁸⁾

- ① 국물[궁물] ② 칼날[칼랄]
③ 입히다[이피다] ④ 미닫이[미다지]

문 19. 다음 중 밑줄 친 어미와 조사용법이 적절한 것은?¹⁹⁾

- ① 그는 올해 한 살을 더 먹으므로 나이가 서른이 되었다.
② 그곳은 잡상인이 자주 방문하므로 업무보기가 어렵다.
③ 선생님은 인격이 높으심으로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다.
④ 그 강은 수심이 깊음으로 배 없이는 건널 수 없다.

문 20. 다음 작품에서 (가), (나), (다)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²⁰⁾

(가)(이)라고 하는 근본 뜻은 아름다운 물건을 숭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무런 지각도 없이 지나치게 쓰는 것과, 가난하면서도 겉모양을 많이 꾸미는 자의 행실을 비판하는 말이다. 물건이 조잡한 것은 처음부터 아무런 영향도 없는데, 만약 (나)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건을 높여 쓰는 것만 미덕이라고 생각하여, 거칠고 잡스러운 솜씨를 높이고 정교한 기예를 내전다면 나라 안의 공업기술을 금지하는 것과 같아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물건들은 차츰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뛰어난 기술자가 드물어지면 국풍도 또한 야비하게 되는데, 이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라는 현상과도 같다. 정직한 방법으로 행동거지를 조습하여 자기 (다)를 넘지 않을 때 자주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① 겉모양 - 속모양 - 실속 ② 화려함 - 견고함 - 실속
③ 풍요 - 빈곤 - 가난 ④ 사치 - 검소 - 분수

문 21. 다음 중 사전 배열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²¹⁾

- ① 왕창 → 왜각 → 왜각 → 왜엑 → 외곬
② 외곬 → 왕창 → 왜각 → 왜각 → 외곬
③ 왜각 → 왜각 → 왕창 → 왜엑 → 외곬
④ 왜각 → 왜각 → 왕창 → 왜엑 → 외곬

문 22. 다음 문장 중 올바른 표현은?²²⁾

- ①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② 회상하건대, 선생님께서서는 따님이 있으시다.
③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④ 남쪽 방면으로 자동차가 밀리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24)

언젠가 나는 감자 칩을 찾으면서 슈퍼마켓 측의 트릭을 발견했다. 진열대 맨 위에서 내가 좋아하는 감자 칩 브랜드를 볼 수 있었는데 ‘소금과 후추 맛’이었다. 한편 조금 떨어진 곳에 같은 브랜드의 감자 칩이 맨 아래 진열되어 있었는데 같은 크기의 다른 맛이었다. 위쪽에 있는 감자 칩은 아래쪽에 있는 감자 칩보다 25퍼센트 더 비쌌지만 고객들은 비슷한 장소에 있는 비슷한 두 제품의 가격을 좀처럼 비교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벼운 간식거리를 가볍게 집어 들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같은 과자라도 어떤 맛인가를 따진다. 어떤 사람은 ‘소금과 후추 맛’이 더 비싸다는 것을 알고서는, 언짢아하면서도 아무튼 돈을 지불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다른 맛을 선택하면서 더 저렴한 제품을 찾은 걸 행운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이 사례는 슈퍼마켓과 관련된 보편적 진실의 한 단편에 불과하다. 슈퍼마켓에는 유사한 대체품이 가득한데, 가격이 변칙적이어서 어떤 것은 싸고, 어떤 것은 비싸다. 가격이 변칙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주의 깊은 쇼핑객들만이 이를 눈치 쫓을 수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대체상품들과 가격을 비교해서 최고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문 23. 위 글의 요점으로 옳은 것은?²³⁾

- ① 물건의 절대가치는 없고 상대가치만 존재할 뿐이다.
② 물건을 고를 때는 품질을 따져보고 골라야 한다.
③ 대체상품이 있을 때는 가격을 꼼꼼히 살펴 경제적인 소비를 하자.
④ 돈을 벌려면 가격에 둔감한 고객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문 24. 위 글의 서술방식으로 옳은 것은?²⁴⁾

- ① 분류 ② 분석
③ 예시 ④ 비교

문 25. 내용 배열 문항인데 복원하지 못함. (어디서도 복원을 찾을 수가 없네요^^;) ²⁵⁾

- 1) ④ ‘반’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반’, ‘두 반’, ‘세 반’과 같이 띄어 쓴다. ‘한반’을 ‘두 반’, ‘세 반’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한 반’으로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한반’으로 붙여 쓴다. [오답해설]
① 떠나온지 → 떠나온 지 (의존명사)
② 잘하는데 → 잘하는 데 (의존명사)
③ 홍부장님 → 홍 부장님, 홍길동씨 → 홍길동 씨
특정한 사람을 부를 때에는 ‘홍 씨’와 같이 표기하고, 성씨를 가리킬 때는 ‘홍씨’로 쓴다.
- 2) ① 구개음화를 반영한다. [오답해설]
② 목호(Mukho): 채원은 자음축약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고유명사 대문자 시작)
③ 칠곡(Chilgok): 어말의 ‘ㅍ’은 ‘ㄱ’, 모음 앞의 ‘ㄱ’은 ‘ㄴ’, 어말의 ‘ㄱ’은 ‘ㄹ’로 쓴다. (고유명사 대문자 시작)
④ 알락(allyak): ‘알락’의 발음은 [알락]이다. ‘ㄴ’이 첨가된 뒤에 유음화가 일어난 것을 반영하여 표기한다. ‘ㄹ’은 ‘ㄴ’로 표기한다. (보통명사 소문자)
- 3) ② → 짓무르다(○)
‘짓무르다’의 준말로 ‘짓물다’를, 파동사로 ‘짓물리다’를 쓸 것 같지만 옳지 않은 표현이다.
‘짓물다’는 ‘세게 물다’라는 뜻의 동사로 다른 단어이다. .
- 4) ④ 아미(娥眉): 누에나방의 눈썹이라는 뜻으로, 가늘고 길게 굽어진 아름다운 눈썹을 이르는 말. 미인의 눈썹을 이른다. [오답해설]
① 반월(半月): 1.반달(반원형의 달), 2. 한 달의 반
② 곡선(曲線): 모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굽은 선
③ 고전(古典): 1. 옛날의 의식(儀式)이나 법식(法式).
2.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
3. 2세기 이래의 그리스와 로마의 대표적 저술.
고전(古籍): 전쟁이나 운동 경기 따위에서, 몹시 힘들고 어렵게 싸움. 또는 그 싸움.
고전(古傳):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옴.
- 5) ③ 새옹은 ‘뿔치로 만든 작은 술’을 의미한다.
- 6) ② 부사격 조사 [오답해설]
①은 보조사, ③은 접속조사, ④는 보조사
- 7) ④ ‘영희에게는 부사어이다. [오답해설]
나머지 전지의 밑줄친 부분은 모두 주어이다.
- 8) ② 문상객이 상주에게 “호상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예절에 어긋난다. 호상(好喪): 복을 누리며 별다른 병치레 없이 오래 산 사람의 상사(喪事)
- 9) ② 율개: 여자가 자신의 오빠나 남동생의 아내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 [오답해설]
① 동서(同省): 자매의 남편 사이나 형제의 아내 사이에 서로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
③ 계수(季嫂): 남자 형제 사이에서 아우의 아내를 이르는 말
④ 아가씨: 손아래 사누이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 처녀나 젊은 여자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
- 10) ③ 철치부심[切齒腐心]: 이를 갈고 마음을 썩히다는 뜻으로, 대단히 분하게 여기고 마음을 썩임. 원수를 갚기 위해 또는 일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함을 비유한 말이다. 와신상담(臥薪嘗膽)과 유사하다. [오답해설]
① 수구초심[首丘初心]: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② 견마지료[犬馬之類]: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이란 뜻으로, 임금이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을 비유한 말
④ 분골쇄신(粉骨碎身):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진다는 뜻으로, 있는 힘을 다해 노력(努力)함, 또는 남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음
- 11) ② [오답해설]
① 큰따옴표: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하거나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사용한다. 강조하고자 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쓴다.
③ 점표: 빈번하게 활용하는 접속사(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등) 뒤에는 점표를 붙이지 않는다.
④ 대괄호: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표현할 때, 즉 안의 말이 바깥 말과 독음이 다를 때에 사용한다.
- 12) ③ 귀뿔: 상대편이 상황이나 일의 진행 따위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슬그머니 미리 일깨워주는 일 [오답해설]
① 위쪽: 한글맞춤법에 따르면 뒷말의 첫소리가 본래 된소리나 거센소리이면 사이사위를 박치어 적지 않는다. 윗쪽(XX)
② 통째: [흔히 ‘통째로’의 꼴로 쓰여]나누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덩어리로

④ 구절 :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구’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구절’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귀절’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㉔ 김동인의 「붉은 산」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관찰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들은 나와 있지만, 1인칭인 ‘나’의 직접적 감정이 노출된 부분
은 (나)이다.

14) ㉔
㉔ 근절지 → 근절지
㉔ 일수 → 일쭉

15) ㉔
보기의 ‘들다’는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라는 ‘들다’의 활용형이다.
[오답해설]
㉔ 들다: 어떤 일이나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㉔ 들다: 날이 날카로워 물건이 잘 배어지다
㉔ 들르다: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마무르다.

16) ㉔
[오답해설]
㉔ 누나의 친구가 예쁜 것인지, 누나가 예쁜 것인지 수식어 모호함
㉔ 그녀가 나만 좋아한다는 뜻인지,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뜻인지 모호함
㉔ 나와 친구들이 같이 점심을 먹은 것인지, 각자 점심을 먹은 것인지 모호함

17) ㉔ ㉔X복원이 맞다면 중복 답안인데... 문맥상 ㉔가 어색하지만 표준어라는 발문의 쟁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답해설]
㉔ 들북 → 들뿔
㉔ 해속 → 해쑥, 햅쑥
㉔ 금세 : ㉔ 얼마 되지 않는 시간 ㉔ 지금 살고 있는 세상
㉔ 씹씹하다 : (음식맛이) 조금 쓴 느낌이 있다.

18) ㉔ 구개음화는 모음의 영향으로 자음의 발음이 바뀐다. 받침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19) ㉔
‘-(으)므로’는 ‘이유,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로서 그 뒤에 조사 ‘ㄹ’이 붙을 수 없다.
‘-으로’는 ‘하는 것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다.
[오답해설]
㉔ 먹음으로
㉔ 높으시므로
㉔ 길으므로

20) ㉔ 지문은 유길준의 「사유전문」이다.
(가) 아무런 지각도 없이 지나치게 쓰는 것과, 가난하면서도 겉모양을 많이 꾸미는 자의 행실을 비판하는
말 = 사치
(나) 물건을 높이 쓰는 것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반대 = 검소
(다) 정직한 방법으로 행동거지를 조심하여 남지 말아야 할 것 = 분수

21) ㉔ ㉔왕창 → 왜각 → 왜깽 → 왜깽 → 외꺾이다.
* 사전의 등재순서
자음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ㅘ, ㅙ, ㅚ, ㅜ, ㅠ, ㅡ, ㅣ

22) ㉔ ㉔“축사를 높이으로써 간접적으로 교장 선생님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 쓰였다. 여기서 ‘계시겠습니다’
다는 쓸 수 없다.
[오답해설]
㉔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자연에(그것에) 복종하기도 한다.
㉔“청하건대처럼 만짐이 없거나, ‘회상하건대처럼 울림소리 만짐 뒤에서는 ‘함’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므로, ‘청하건대, 회상건대’로 줄어 쓴다.
㉔ 남쪽 방면으로 자동차가 정제되고 있다.

23) ㉔ 지문은 팀 하포드의 「경제학 콘서트」의 내용이다. 슈퍼마켓에 진열된 감자 칩의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체상품이 있을 때에는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여 경제적인 소비를 하자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24) ㉔ 예시 : 어떤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다.

25) 독해 - 배열 순서 (복원되지 않음)

2016년, 나래국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7월 대비 총정리 Week 특강(1일 무료특강) : 2015년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적중률 총정리

2015.7.3(금) 14:00~18:00 KG패스원

- 2015 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일행
+ 국회직, 경찰 등의 기타 직렬까지 적중 분석
- 2015 기출을 통해서 본 "2016 공무원 국어의 변화 예고"
- '나래국어' 튜토리얼 공개! - 마인드맵, 독해 알고리즘,
333암기법, 퍼즐연상 암기법

특전! - 나래카페 특별 회원으로 등업!
(특별 회원은 2016년 제작되는 나래 암기
워크북 시리즈 모두 무료)

7월 개강! 나래이론+300제 (N수 추천)

2015.7.10(금) 18:40~22:20 주1회 4T * 8주

- N수에게 강추하는 이론과 문제풀이 병합 단과
- 이론에서는 빈틈이 어딘지 꼼꼼하게 다시 체크하며 약점
보완
- 다양한 난도의 단월별 문제로 구성된 300제 문풀

특전! - 국가직/서울시/지방직 대비 나래동형을 들은
제도전자들은 교수 장학생으로 무료 수강
(가장 중요할 때 저를 선택하신 분의 제도전, 돕겠습니다)

7월 개강! 시작하는 사람들의 나래국어 (실용국어 - 문법과 규정)

2015.7.10(금) 9:00~13:00 주1회 4T * 8주

- 가장 쉽게, 효율적으로 문법과 규정 이론을 시작하고 끝낸
다!
- 판서와 필기 시간을 줄인 꼭~찬 강의 (PT수업과 완벽한 자
료)
- 떡먹여주는 워크북 과제물
(과제물을 완성하면 필기! 자습 설계 고민 필요 없음)

국어 이론을 효율적으로 습득하려면, 우리의 암기 및 사고
방식을 고려한 학습방식이 필요합니다. 암기 요소는 단기 기
역이 장기 기억이 될 수 있는 명확한 시간을 계산해 복습해
줘야 하고(3.3.3 암기법),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요소는 가장
기본적인 샘플로 반복 훈련을 한 뒤 순차적으로 범위와 난도
를 높여가며 훈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32시간에 이루어
집니다!

7월 개강! 시작하는 사람들의 나래국어 (독해 - 비문학과 문학)

2015.7.6(월) 18:40~22:20 주1회 4T * 8주

- 2016년, 출제 비율 1위 영역인 독해를 잡아라!
- 화제의 '나래 독해 알고리즘'을 출간 전에 시크릿 프린트로
공개!
- 발문별로 순서를 구축하여 속도와 정확도를 함께 잡기
- 정답과 매력적 오답의 변별 능력 만들기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지 않았어도, 기적은 일어난다.

- 카페 공지에서 독해 알고리즘 출간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증정
본 드림

나래의 모든 자료 여기 ↓

<http://cafe.daum.net/naraeyoujin>